

서울서부보호관찰소

○ 매체 : 대한경제(2024. 4. 12.)

○ 제목 :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노인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실시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노인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실시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제 1차 노인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했다./사진:서울서부보호관찰소 제공

[대한경제=최종복 기자]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승욱)는 지난 11일, 12일 '우리마포복지관'에서 신청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제 1차 노인 취약계층 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에서 건축관련 특기자(타일공 등) 및 건축자재 기부처를 발굴하여, 관내 노인 취약계층 5세대를 추천받아 매주 1~2가구를 진행하여 내달 초에 마무리한다.

1차 수혜자로 선정된 최모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배우자와 사별하여 혼자 지내며, 2년 전 암 수술 후 회복 중인 어르신으로 "몸도 마음도 힘든 상황에서 열악한 욕실을 개선해 주어 보호관찰소와 복지관에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승욱 소장은 "서울서부보호관찰소는 올해 사회봉사 대표 프로그램으로 '노인복지 지원사업'을 선정 진행하고 있다"며 "노인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미용 봉사, 장수 사진 촬영 등 어르신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다양한 분야의 국민공모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일손이 필요한 지역단체나 주민들이 신청 가능하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또는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로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지원이 가능한 제도다.